

## - 신체적 장애를 예술로 승화시킨 로트레크 -



〈관객에게 텁크하는 아페르 키페트〉  
-1894년, 미분지에 구아슈, 43\*28, 알비 르투즈 로트레크 미술관 소장

신체적 결함을 가진 사람이 가장 동경하는 것은 평범한 삶이다. 그들에게 평범하다는 것은 축복이다. 더군다나 신체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때 느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로트레크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신체적 장애 때문에 화가의 길로 들어섰다. 로트레크가 불구가 된 원인은 집안의 근친결혼으로 인해서다. 로트레크 가문은 십자군 원정 시절 사회적으로 큰 공헌을 했던 명망 있는 귀족 가문으로 가문의 번영을 유지시키기 위해 근친결혼이 오랜 전통이었다. 하지만 근친결혼은 재산상으로는 이익을 보았지만 유전적으로는 문제를 일으켰다.

대귀족 집안 출신답게 로트레크의 아버지 알퐁스 그 틀루스 로트레크 몽파백작은 남프랑스에 여러 곳에 사유지를 소유할 정도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성적으로도 방탕했으며 유난히 매사냥

하기를 매우 좋아했다. 알퐁스 백작은 이종사촌 간이었던 아델 타피에 드 세리랑과 결혼을 해 로트레크를 낳았다.

그들의 결혼은 정략결혼이었기 때문에 부부는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했다. 허약하게 태어난 로트레크는 13살 때 사고로 한쪽 다리가 부러졌고 14세 때에는 다른 다리마저 골절되었다. 유전적인 결합이 있었던 로트레크는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추어버렸다. 상체는 정상이었지만 하체는 짧은 기형적인 체구가 되었다.

불구가 된 로트레크를 알퐁스 백작은 아들로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로트레크는 병실에 누워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말이나 동물 그림을 그렸다. 아들의 모습을 지켜본 로트레크의 아버지는 친구였던 화가 프랭스토, 존 루이스 브라운에게 상담한다. 그들은 로트레크에게 소질을 발견하고서는 아버지에게 미술학교 입학을 권한다.

로트레크는 가정을 돌보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매 사냥과 스포츠에 빠져 있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결혼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그를 보살피는 일에 매달린 어머니 아델 백작부인 덕분에 그림에 전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로트레크는 어머니의 독점력과 장애의 아들을 보호하려는 것에 반항한다. 로트레크는 어머니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기질을 물려받은 그는 인습에 얹매이지 않는 생활을 즐기기 위해 몽마르트로 거처를 옮긴다.

로트레크는 몽마르트에 있는 물랭루즈에 매료되었다. 그곳은 아웃사이더, 관습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장소였다. 로트레크는 퇴폐적인 물랭루주에서 자유로웠다. 그는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가문의 영광에 집착하고 있는 집안에 반항해 평범한 현실을 택한 것이다. 로트레크 백작은 아들이 물랭루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서는 그때서야 사창가를 소개시켜주었다. 당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창가를 소개시켜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물랭루주에서 로트레크는 자신의 세계를 발견한다. 쾌락에 빠져서 살았지만 화가로서의 본분을 잊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물랭루주의 사람들을 자신에 화폭에 담기 시작한다.

로트레크가 물랭루주의 스타를 그린 대표적인 작품이 <관객에게 답례하는 이베트 길베르>다. 이 작품은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샹송스타 이베트 길베르를 그렸다.

길베르가 노래하면서 장갑 낀 손가락을 펼치고 그 후에 청중에게 인사하는 순간을 로트레크는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베트 길베르는 인기가 많아 여러 음악 카페나 카바레의 클럽에서 출연을 해 샹송을 불렀다. 그녀는 현재 샤크, 레오 폐레, 조르주 브라상, 에드트 피아프 등의 노래로 잘 알려진 ‘샹송 레알리스트’ 계열의 가수다.

로트레크는 노래하는 길베르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 숭배했을 정도다. 그녀는 항상 무대에서 밝은 드레스에 검은 장갑을 끼고 노래를 불렀다. 너무나 가난한 그녀에게 가격이 싼 검은 장갑은 자신의 우아한 외모를 강조하기에 더없이 좋은 소품이었고 로트레크는 길베르에게 경의를 표현하기 위해 그녀만의 독특한 특징을 잡아 독자적인 표현방식인 ‘실루엣’ 기법으로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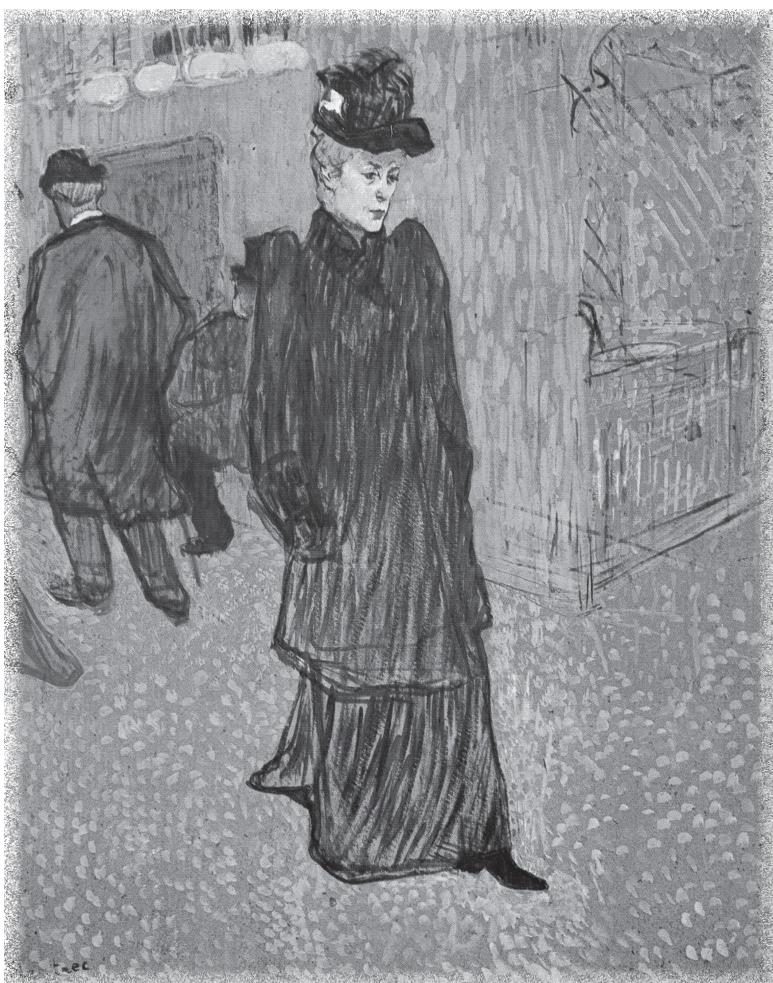
로트레크는 이베트 길베르를 드로잉, 구아슈, 석판화로 그렸다. 길베르는 자신을 숭배해서 아름답게 그려주었던 다른 화가들과 다르게 로트레크의 그림 속에 자신의 모습을 처음에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약간 우스꽝스러운 외모로 표현되어 있는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았으나 곧 길베르는 로트레크의 예술성에 확신을 얻었다.

로트레크는 그녀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한 화가였다. 로트레크는 이베트 길베트에게 바치는 단색 판화집 연작을 제작했는데, 이 화집은 무대 위에서 길베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실루엣 중심이었다. 길베르는 로트레크의 그림 때문에 당대의 스타를 뛰어 넘어 사람들에게 불명의 이름을 얻었다.

로트레크는 물랭루주 스타들 중 잔 아브릴과 가장 사랑했다. 그녀는 물랭루주에서 캉캉춤을 추는 댄서로서 상반신을 드러낸 자태가 아름다워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에 나오는 미인이라는 평판을 받고 있었다. 잔 아브릴이 무희가 된 것은 10대 때 무도증이라는 병을 앓게 되면서부터다. 무도증은 무의적으로 근육을 실룩거리는 신경성 질환으로 그녀는 병을 고치는 동안 춤을 추면서 자유로움을 느꼈고 춤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

손님과 무희로 두 사람은 만났지만 로트레크가 그녀에게 빠져든 것은 춤 때문만은 아니었다. 미술과

문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의 지성미에 빼어든 것이다. 예술을 사랑한 그녀를 위해 로트레크는 잔 아브릴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모습이나 공연 후의 모습을 자주 그렸으며 또 자신의 그림을 선물했다. 로트레크가 잔 아브릴를 그린 대표적인 작품이 〈물랭루주에서 나오는 잔 아브릴〉다. 잔 아브릴의 개인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이 작품은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로트레크는 이 작품으로 통해 그녀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었다.



《물랭루주에서 나오는 잔 아브릴》  
-1893년, 미분지, 유화, 쿠아슈, 84x63, 하트피드 위즈워스 아티네움 소장

감은색 코트와 모자  
를 쓴 잔 아브릴이 손  
을 코트에 주머니에  
넣은 채 찬란한 불빛  
을 내뿜고 있는 물랭  
루주를 나와 걸어가  
고 있다. 그녀 뒤에는  
남자들이 물랭루주에  
입장하기 기다리고  
있다.

품위 있지만 수수한  
검정색 옷차림은 수  
직으로 그려져 주변  
의 요란한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물랭루주를 떠나 생  
각에 잠겨 있는 잔 아  
브날의 심리를 뛰어  
나게 표현했다.

로트레크처럼 물랭루

주를 속속들이 아는 화가가 없었다. 물랭루주는 그에게 1889년 포스터를 의뢰한다. 포스터가 파리의

거리에 불자 로트레크는 하룻밤 사이에 유명인이 되었다.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물랭루주 포스터는 최초의 현대적인 포스터이자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로트레크는 물랭루주의 스타들과 어울렸지만 그를 따뜻하게 맞아해 준 곳은 결국 아버지가 소개한 사창가였다. 그는 특정한 여인을 사랑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 로트레크가 진정 사랑했던 것은 여자 그 자체였다.

로트레크는 사창가에 살면서 인간의 욕망이 내뿜는 모든 것을 표현하고 싶어 했다. 매춘부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던 로트레크는 그녀들의 생활에 방해 받지 않는 한 마음 놓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매춘부들의 생활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로트레크는 매춘부들의 일상을 소재로 유화나 석판화, 드로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했다. 당시 매춘부를 작품의 소재로 다룬다는 것은 화가로서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명성에 관심이 없던 로트레크는 비난을 개의치 않았다.

앙리 드 톨루스 로트레크(1864-1901)는 몽마르트에서 물랭루주와 사창가를 전전하면서 자유롭게 살지만 말년에 지나친 과음으로 인해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 결국 로트레크는 정신착란증까지 겪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정신병원에서 로트레크는 아버지에 도움을 청하지만 알퐁스 백작은 책임을 회피했다. 알퐁스 백작은 이때에도 사냥에 빠져 있어서 아들을 영국으로 보내라는 편지만 보낸다.

로트레크는 죽음을 앞두고서도 평생 그토록 원하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로트레크는 자신이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결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힐 정도로 아버지의 귀족적인 삶을 동경했다.

로트레크는 당시 보수적인 미술애호가들로부터 경박한 그림이라고 비판을 받았지만 인간의 솔직한 욕망을 그리고 있는 그의 작품들은 오늘날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